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수많은 물음표가 별이 되어 하늘을 수 놓는다

박 여 범

용북중학교 교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코로나19가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언젠가는 진행될 것이라던 온라인 수업의 '낯설음'이 대표적인 변화의 하나다. 낯설었던 원격수업, 달라진 교실 풍경, 일상이 되어 버린 마스크, 힘겨운 나날을 함께 두 손 꽉잡고 격려하고 배려하며 조심조심 건너고 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은 성장하고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웃을 것이다.

'포니 싸피엔스' 시대에 '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한 직업의 하나이다. 나름 많은 혜택을 받는 선호하는 직업의 대표라 할 수 있다. 기존 세대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장래희망을 천직으로 알았던 '교사'는 이제 직업이기 전에 '열정'과 '사명'을 요구하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는 교직 사회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나라가 흔들리는 아찔함을 경험한다.

한 학기를 시작과 끝에서 항상 말없이 아이들과 학교를 지켜내는 이름 없는 '교사'가 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카테고리에서 교육 현장도 그러는 척 않아만 있을 수 없다. 디지털 문화에서 아날로그를 고지하는 문화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

그래서 '교사'도 변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독서와 연수를 통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학부모도 학교공동체도 행복하다'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스승의 그림자'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과 선생님을 만나고 헤어진다. 성격도 외모도 생각도 차이를 보이는 선생님과의 교감으로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교사를 따르게 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정한 한마디의 말이나 공감하는 노래나 행동이 다음 세대를 지켜낼 어느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역할 모형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깨가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선생님이 든든하게 서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교사로서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다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민이 필요 없다. '착하다'라는 단어다. 형용사 '착하다'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는 뜻이다. 유의어로는 '상냥하다', '순하다', '순탄하다', 반의어로는 '악하다', '흉악하다', '악랄하다'로 정리할 수 있다.

'나다움'에 대한 물음표는 "여범쌤, 여범쌤은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 고마워"라는 짧은 대화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착하다'는 의미가 사선적인 의미로 다가왔기에 단순한 나의 뇌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못했다. 그저 사전적인 뜻풀이처럼, '착하다'는 개념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다'는 나름의 개념 정리 때문이었다.

문제는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라고 했다. 방탄소년단 멤버와 결혼한 것이라며 늘 애교를 보이던 인서가 달려서 달려와 "우리 반 다음 시간 국어예요, 기대할게요~ 여범쌤은 착하세요?"라며 하트를 남발한다. '뭐야, 지식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보여 달라는 거 아니? 2차 고사도 끝나고 방학이니…….'라는 생각이 눈앞을 질주한다.

혹여, 아이들이 생각하는 '착하다'는 의미와 나의 시각이 다른 것을 아닐까? 의문부호에 의문부호가 늘어나자, '나를 여쭤봐 보고 이러는 거야?' 급기야, 나의 뇌는 빠르게 회전하여 '이전 나쁜 행동을 해도 문제 삼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잘 받아주는 교사'라는 의미까지 확대하여 해석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리자, 날쌔한 감정이 팍 올라왔다. 그래서 잠시 복도에서 물끄러미 교실을 향해 콧노래를 부르는 많은 아이들 바라보았다.

적지 않은 나이에 평교사로 부임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황순원의 (소나기)에 등장하는 순수한 소년, 소녀가 선생님이라는 어색한 발음은 두서하고 '여범쌤은 착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여범쌤이세요'라며 깔깔거리는 힘이 나는 공간이다. 녀석들은 여전히 '여범쌤은 착하세요(?)'에서 나름 '시르에 시르다움'을 눈빛으로 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를 내후년으로 몰고 간 '코로나 19'에도 '착한 여범쌤'과 손가락 하트를 남발하던 녀석들은 '서로를 서로답게' 만들어 주는 2020년 새 학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개학은 연기되고 원격수업과 개학이라는 사이버 세상을 통해 '여범쌤'이 아닌 '선생님'이라는 어색한 호칭으로 녀석들을 비대면 했다. 산더미 같은 공문에 치여 원격수업 준비와 방역,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지침은 3월에 나에게 배달된 반갑지 않은 선물이었다.

'나다움'은 시인으로 평론가로 수필가로 여유와 칼날춤이다. 그러기에는 현실이 너무 아프고 야속하다. '나를 나답게 한다는 것'은 현실에는 없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다움'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잔혹하다. '여유'를 찾는 것도 어쩌면 '사치'였다.

지난여름, 천둥소리가 요란하던 어느 날, 교정은 시험으로 조용하다. 장맛비가 멈출 줄 모른다. 2층에서 바라본 학교 앞 매내천은 온통 황톳빛이다. 평상시 졸졸 흐르던 실개천이 거대한 강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돌다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 하나도 불안하다. 강둑의 벌말한 지점이다.

투덜투덜 잰걸음으로 가락가락
걷다 보니 시험감독 시간
후다닥 정신을 부여잡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름 모를
수학 공식 무덤에
써 내려간 문제 풀이는
휘말리고 엇갈려 돌아가고,
오늘도 호올로
나다움을 찾아 마중 나가면
수많은 물음표가 별이 되어
하늘을 수놓는다.

- 박여범, (나다움)전문-

2교시 시험은 수학이다. 녀석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선택형 문제는 끄적끄적 풀어간다. 서술형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블펜을 내려놓는다. 그런데 녀석은 너무나 편해 보였다. 그래도 구엇이라 말을 할 수 없어 바라만 본다. 시험지 한 번 보고 한숨 쉬고, 창밖을 한 번 바라보고를 반복하는 녀석 때문에 눈물이 날 것 같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시간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음에 가슴이 미여 온다.

시험도 결국은 성장하기 위한 '기다림과의 싸움'이라는 결론에 이르자 슬퍼졌다. 내가 녀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시험감독이 부족하여 교장, 교감이 부임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교실 현장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 주어진 자리에서 나답게 녀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 이것은 나의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녀석은 어쩌면 편안하게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초,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 그룹의 흐름에 녹아드는 것,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주변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으로 살아내는 것, 그 어는 것에도 '나다움, 나답게 사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인도에서 혼자 살아도 자연이라는 거대 무시한 흐름 속에 '나다움'을 표현하기란 쉬지 않다. 사회적 지배 속에 그 흐름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퍼진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너무 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앞서가지도 않는, 진정한 나다움,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있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발아래에 있는 '나다움'을 찾아내 즐길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하기는 할까? 지금이 바로 '나다움'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아닐까?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답은 있는 것일까?

마스크 없이 수업할 수 있는 일상, 발열 체크 없는 등교, 손을 씻기, 거리두기,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로 인한 단어들이 생소함에서 익숙함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공감하는 부분을 나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씨앗인 친구의 마음에 뿌려내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공감'이다.

자작나무 숲에는 같은 듯 다른 저마다의 '너'와 '나'의 씨앗이 세상에 고개를 내민다. 그들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햇살과 바람과 비 그리고 시간의 기다림의 터널을 지난 새롭을 기다린다. 우리도 '학교 공동체' 본연의 생활로 환기에 넘치는 2021 신축년 봄을 기다려보자.

수많은 물음표가 별이 되어 하늘을 수놓는다.

사 설

완주 화산중 심의두 이사장의 한글 사랑

완주 화산중학교 심의두 이사장은 40년이 넘도록 한글 세계화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그는 오래 전 한글의 세계화가 인재 양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미국 오하이오주 우드모어 중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한글 세계화 선포식을 가졌다.

6명의 현지 교장들과 벌인 토론은 지금도 생생하다. 토론 주제는 한글과 로마자 중 어느 글이 더 우수하냐는 것이었다.

심 이사장은 한글이 과학적이고 간단명료하며, 배우기가 쉽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모두 인정했다.

심의두 이사장은 2014년부터 한글 세계화 총본부를 화산중학교 내에 설립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30개국에 50개 본부가 만들어져 있다. 전체 회원은 1만3천여 명에 이른다.

그는 2007년부터 스리랑카 정부에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2012년 스리랑카 정부는 초·중·고 2000개에서 한글을 제2외국어로 도입했다. 스리랑카 교육부 장관은 4년 뒤 12명의 관료를 데리고 화산중학교를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심 이사장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길은 한글의 세계화에서 시작된다. 이 신념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영어를 배우러 미국을 갈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러 한국에 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글은 정보화 사회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 받고 있다. 한글의 우수성을 우월주의가 아닌 과학성과 보편성으로 다루어야 한다. 지나친 영어 몰입 정책도 바꿔야 한다.

한글이 세상에 나온 지 500년이 넘었다. 그러나 한글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심의두 이사장의 목표는 한글 국제학교 건립이다. 그의 한글 사랑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세계평화 경제인연합 출범에 거는 기대

세계평화경제인연합 호남·제주 출범식이 지난 15일 전남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천주평화연합 호남·제주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관내 유관 경제인 90여명이 참가했다.

이근재 공동 회장은"경제인 연합 활동은 사회적 기업 정신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경제인의 비전에 대해 크게 공감 한다"며"호남·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인들이 연대해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기업 정신으로 회장직을 수행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계평화경제인연합은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123개국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월드 서밋 2020 총회'에서 창설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인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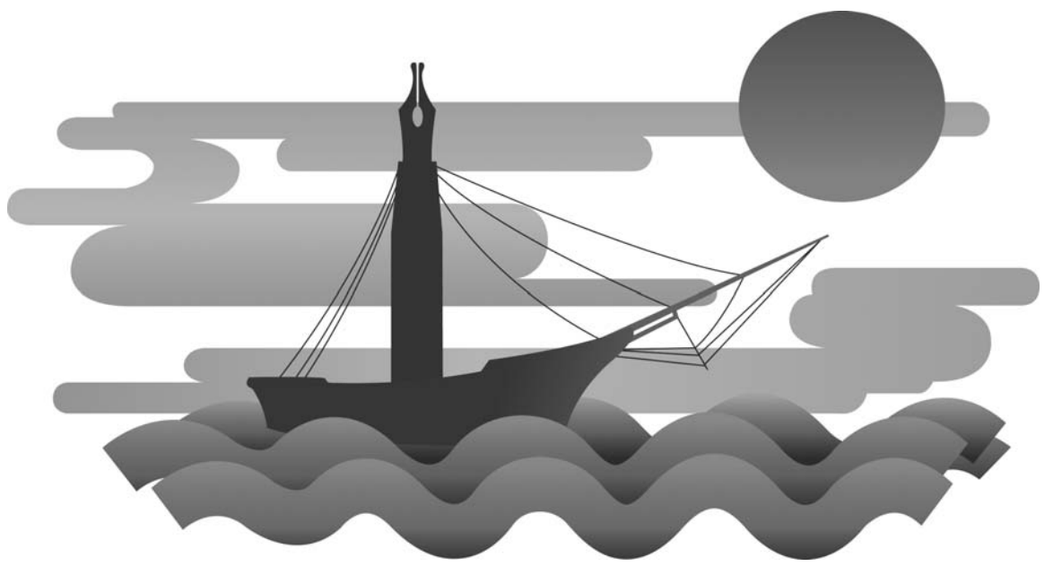
세계 초대 회장에는 세계적인 기업가 짐 로저스가 선임되어 이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적 차별이 없는 평화 이상 세계를 만드는 일은 인류의 염원이다. 전 세계의 경제 관련 재단 및 기업체 경영자들이 먼저 공생주의 가치 전파와 경제적 평준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많은 발전을 했다. 그러나 빈부 격차가 심해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한 경제를 공정한 경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나서야 한다. 연합 활동에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절실하다.

경제적 평준화를 위해 경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세계평화를 위한 경제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인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평화를 위한 경제인 선언문 채택과 세계평화경제인연합 창설은 그 의미가 크다. 원대한 이상과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경제인 연합 활동을 기대한다. 사회적 기업정신으로 세계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